

# 오봉 신지제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

황 만 기\*

- I. 들어가는 말
- II. 신지제의 수학과 학문 경향
  - 1. 성장에서의 수학
  - 2. 학문 경향
- III. 신지제의 삶에 나타난 제 양상
  - 1.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 일관한 삶
  - 2. 목민관으로서의 청렴과 선정(善政)
  - 3. 임란 극복의 활약상
  - 4. 산수에 대한 흥취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는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에게 수학하면서 급진적인 학문적 발전을 이루었고, 학봉 김성일을 통한 학문적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서애 류성룡, 여헌 장현광, 경정 이민성, 자암 이민환 등 당대 지식인들에게서 그의 훌륭한 학문과 빼어난 행적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식인들의 기본필독서인 『소학』, 『사서삼경』을 위시하여, 그리고 두보시와 『성리대전』 등 각종 서책들을 두루 섭렵하였다. 또 『퇴계집』을 애독하였으며, 퇴계가 중국의 잠명찬(箴銘贊)을

\*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학술연구대우교수 / sino5360@hanmail.net

선집한 『고경중마방』을 통해서 내면의 수양을 완성해갔다. 본고는 신지제의 수학과 학문, 그리고 그의 삶을 몇 가지 특징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신지제는 어려서부터 효행이 남달랐는데, 특히 계모 오씨(吳氏)에 대해서 증자(曾子)의 양지(養志), 맹종과 왕상의 양구체(養口體)의 두 측면을 두루 겸비하는 효행을 실천하였다. 그의 효는 나라에 대한 충으로 전이되어 벼슬살이하는 기간 내내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고 권세에 아부하지 않는 청렴한 선비상을 보여주었다. 또 목민관으로서 선정과 구휼 정신은 가는 곳마다 선정비를 세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예안 현감 시절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한 활약상은 그가 문무를 겸비한 충신임을 새롭게 보여주는 대목이고, 청량산 유람에서의 섬세한 문학적 표현은 그가 시인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 주제어

오봉 신지제, 임진왜란, 예안 현감, 유일재 김인기, 목민관, 효행.

## I. 들어가는 말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 1562~1624)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의성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효행이 남달랐고, 천부적 재능을 바탕으로 한 학업은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 1520~1588)에게 수학하면서 학업의 진전에 가속도가 붙어 28세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문과 장원이라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문과 장원은 9품직이나 8품직이 아닌 7품직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특혜가 수반되었다. 이후 신지제는 내직과 외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관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은 신지제를 한번 보고 으뜸가는 인물이라고 일컬었고,<sup>1)</sup>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도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輓詩)에서 “온화하고 공손한 도량 억지로 꾸밈이 아니고, 즐겁고 화평한 참다운 정은 자연에서 우러나왔네”<sup>2)</sup> 하였으며, 경정(敬亭) 이민성(李民成, 1570~1629)은 제문에서 “확고하여 꺾기 어려운 지조를 지녔고 의연하여 범접하기 어려운 기색을 띠었으며, 널찍하여 포용력 있는 도량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sup>3)</sup>라고 하였으니, 신지제의 행적을 대략 상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북배수적(腹背受敵), 즉 안과 밖 양쪽 모두로부터 적이 밀려오는 형세에 있었다.<sup>4)</sup> 그리하여 이따금 중국과 일본의 몸부림에 등이 터지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임진왜란 역시 일본의 ‘가도입명(假道入明)’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롱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지제는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당해 수령으로

1) 『梧峯集』附錄「行狀」(李民奩撰) 참조.

2) 張顯光, 『旅軒集續集』卷1, 「輓申梧峯(之悌)」, “溫恭雅度非虛矯, 樂易真情是自然.”

3) 李民成, 『敬亭集』卷13, 「祭申承旨順夫令公文」, “確乎難拔之操, 毅然難犯之色, 恢乎有容之量, 今不可復見矣.”

4) 한명기, 「임진란 七周甲의 역사적 의미」, 『임진란연구총서』1,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3, 53쪽 재인용.

서 치안유지에 진력하면서 7년간의 난리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목민관으로서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다. 비록 문관의 자격으로 시작한 관리의 행보였으나 전란을 당해서는 평소 익힌 병법서를 바탕으로 전략의 운용까지 논하였으니, 우리는 그를 문무를 두루 겸비한 선비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이제까지 신지체에 대한 연구는 박명숙의 논문 한 편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본고에서는 오봉 신지체의 학문 경향과 삶의 여러 양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신지체의 수학과 학문 경향

### 1. 성장에서의 수학(受學)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던 신지체는 7세 무렵에 이웃 노인에게서 본격적인 가르침을 받게 된다. 이는 마치 퇴계가 6세에 이웃 노인에게 천자문을 익히기 시작한 것과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신지체는 13세에 백씨(伯氏) 신지효(申之孝, 1561~1592, 호 鷹巖)와 함께 안동 와룡 가야(佳野, 현 佳丘)에 거주하던 유일재 김언기에게 가르침을 받게 된다. 신지체는 밤낮 쉬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 모습을 본 김언기는 “이 아이는 말이 신중하고 용모가 중후한 데다 학문에 독실하니, 훗날 반드시 큰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지체는 권태일(權泰一, 1569~1631), 박의장(朴毅長, 1555~1615) 등과 함께 학문을 익혔는데 이때의 일화가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5) 박명숙, 「오봉(梧峯) 신지체(申之梯) 선생(先生)의 생애(生涯)와 학문(學問)」, 『동방예학』 38, 동방예학회, 2017.

당시 동학 70여 명이 서당에 번을 들며 불을 지폈다. 하루는 권태일·박의장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동료가 실수로 나무꾼을 밀치는 바람에 나무꾼이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나무꾼의 아들이 관아에 고소하여 밀친 동료가 잡혀가게 되었다. 이때 오봉이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갔으니 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울 수 없다.”하고 관아로 따라 들어가서 서로 자신이 밀쳤다고 다투었다. 고을 수령이 한참 지켜보다가 마침내 고소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세 아이에게 모두 정승의 기상이 있다. 차마 일개 촌부의 일 때문에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다. 관아에서 널을 갖추어 네 아버지를 물어 줄 것이니 너는 돌아가라.”하고서 오봉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염려 말고 돌아가서 글을 읽어라.”하고 이어서 서당 근처 마을에서 관아로 바치는 땀 나무를 서당으로 옮겨 보내어서 나무하는 수고로움을 덜게 하고 이를 해마다 이행하는 준례로 삼았다고 한다.<sup>6)</sup>

유일재에게 5년간의 학업을 마친 신지제는 배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곧장 의성현 서쪽에 있는 천방산 지보사(持寶寺)에서 3년 동안 학문을 익히게 된다. 그런데 준수한 모습을 지닌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유부녀가 밤이 깊도록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이때 여인의 속내를 알아차린 그는 의리를 내세워 그 여인을 엄히 꾸짖고 회초리로 매질하여 돌려보냈다. 이후 아내로부터 전말을 전해 들은 남편이 술과 음식을 가져와서 사례하기도 하였다.<sup>7)</sup> 자칫 유부녀와 청년 선비의 불륜이 전개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혹여 신지제가 유부녀의 유혹에 넘어가 남녀 간에 정분이라도 났더라면 신지제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그가 취한 선비로서의 올바른 몸가짐은 뒷날 훌륭한 대학자로 성장하게 된 바탕이었음은 물론이다.

신지제는 20세에 의성현 남쪽에 위치한 빙산사(氷山寺)에서 학문을 익혔다. 그러다가 23세 때에 생육신의 한 사람인 어계(漁溪) 조려(趙旅)의 5대손인 망운(望雲) 조지(趙址)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이후에도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지속되었으며, 그의 나이 28세에 문과 갑과에 장원

6) 『梧峯集』 「年譜」 14세조 참조.

7) 『梧峯集』 「年譜」 17세조 참조.

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때 시험 감독관이 바로 서애 류성룡이었다. 어떤 이가 신지제의 고득점에 대한 질문을 하자, 류성룡이 “그 사람의 됃됨이를 평가하면 아마 문장보다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한편 그의 나이 27세에 스승 김언기의 죽음을 맞게 되어 다음과 같은 만시를 짓게 된다.

翻翻丹旆曉雲斜	만장은 펄럭이고 새벽 구름 빗겨있는데
執紼荒山莫奈何	산으로 가는 상여를 어찌할 수 없구나
小子微誠慚請禱	소자의 작은 정성 기도하기가 부끄럽고
樑摧遺恨祇今多	들보 꺾인 한스러움은 지금도 여전하네 <sup>8)</sup>

4구의 들보가 꺾였다는 말은 훌륭한 스승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데,<sup>9)</sup> 여기서는 스승 김언기의 죽음을 가리킨다. 김언기는 호계서원의 전신인 여강서원의 초대 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당시 안동권에 끼친 학문적 영향은 딱히 대적할 인물이 없었다. 안동사람들이 주도한 여강서원 건립은 예안사람에 의해 건립된 도산서원과의 대척점에서 비롯되었다. 도산서원 건립은 예안의 향권을 쥔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이후 그의 학문을 계승한 후학들에 의해 월천학파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신지제는 스승인 김언기 사후에는 다년간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을 높은 산처럼 공경하고 섬기면서 따랐다.<sup>10)</sup>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학봉 어른은 내가 스승으로 섬기던 분인데 이제 고인이 되었다.”<sup>11)</sup> 하였으며, 동계(東溪) 조형도(趙亨道, 1567~1637)는 신

8) 『梧峯集』 卷7, 「輓惟一齋金公」.

9) 옛날 공자(孔子)가 아침 일찍 일어나 뒷짐을 지고 지팡이를 끌고 문 앞에 한가로이 노닐며 노래하기를 “태산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꺾이고 철인(哲人)이 죽겠구나.[奉山其頽乎 梁木其摧乎 哲人其萎乎]” 하였는데, 그 후 곧 별세하였다. 여기에서 연유하여 스승의 죽음을 산퇴 양취(山頽梁摧)라고 한다. 『禮記 檀弓上』

10) 『梧峯集』 卷7, 「祭鶴峯金先生文」, “吾人之不肖無狀, 往來於門下者, 亦既有年, 仰高山而敬服.”

11) 『梧峯集』 卷6 「遊清涼山錄」, “鶴老吾所師事, 而今化爲古人.”

지제의 죽음에 지은 제문에서 “일찍부터 학봉 어른에게 인정받았고, 전 일하게 퇴계의 가르침을 본받았네.”<sup>12)</sup>라고 하였다.

## 2. 학문 경향

신지제의 학문에 열정은 공무를 집행하는 여가에도 지속되었고, 심지어 전란중에서도 소홀함이 없었다. 『오봉집』에는 신지제가 읽었던 서적에 대한 언급이 있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그는 한시 창작에 남다른 특장을 보였다. 이는 그가 평소 중국 당나라 두보의 시를 애독하고 애송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내가 젊어서 佳野에서 유학하였다. 이때 스승님 책상 위에 『杜詩』全帙이 있었다. 가져다 보았더니 바로 친구 金光門 씨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임진년(1592)에 宣城 수령으로 부임하자마자 병란을 만났다. 마음이 子美(두보의 字)와 동일한 점이 있어 자미의 시를 보고 싶어 하였다. 광문씨가 선성 사람이기에 빌려 보았다. 시 가운데 나의 기호에 맞는 것을 베껴서 다섯 권으로 나누었다. 다만 필체가 졸렬하여 쓴 글씨가 몹시 빼뿔빼뿔한 것이 한스럽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새로 쓰기를 기다려 문인과 후생 및 자제들이 함께 보았으면 한다.<sup>13)</sup>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신지제는 『두시』 중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시만 뽑아 다섯 권으로 재편집하였다. 성당(盛唐) 때의 시인인 두보는 안사(安史)의 난이라는 혼란기를 살면서 우국충정에 불타는 마음을 시로 노래하였다. 그러므로 신지제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두보가 내적갈등을 어떻게 승화하였는가를 두시를 통해 살피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시

12) 趙亨道, 『東溪集』 卷4, 「祭申順夫文」, “得見知於鶴老, 專步趨於陶山.”

13) 『梧峯別集』 識跋, 「書杜詩抄選卷後」, “余少時遊學於佳野. 時先師案上有杜詩全帙. 取而見之, 乃友人金君光門氏家藏也. 壬辰來守宣城, 值兵禍亂中, 心事有與子美同者, 思見其詩. 光門氏宣人也. 於是借覽之, 就其中抄其適於己好者, 分爲五卷. 但手品拙澀, 作字甚不正可恨. 俟善字者改書, 思與友生及後生子弟共之也.”

창작에 있어서 『두시』를 차운하는가 하면, 한시작품 속에 『두시』를 인용한 구절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가 『두시』를 애호하여 이를 한시 창작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지제는 백씨가 『성리대전(性理大全)』에서 직접 가려 뽑아 베껴 쓴 책 뒤에 발문을 썼다. 내용을 보면 백씨가 생전에 애독하던 책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성리대전』은 유학자들의 필독서였기에 신지제 역시 이 책을 탐독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무엇보다 그토록 존숭하고 경모하였던 퇴계 역시 한평생 이 책에 애착을 보였기에 『성리대전』에 담긴 주자의 사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지제는 1598년에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 1530~1604)에게서 얻은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을 항상 휴대하며 내면 수양에 치력하였다. 『고경중마방』은 퇴계 이황이 은나라 탕왕의 「반명(盤銘)」을 비롯해서 77편의 잠(箴), 명(銘), 찬(贊)을 뽑아 엮은 잠언서이다.<sup>14)</sup> 사실이 『고경중마방』은 1595년에 월천(月川) 조목(趙穆)이 도산서원에서 처음 발견한 책이다. 평소 퇴계를 경모하여 직접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던 신지제는 퇴계의 편저인 이 잠언서를 통해서라도 퇴계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가 하면 속세에 찌든 내면을 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경중마방』은 1607년 한강 정구에 의해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세상에 널리 유포되었고,<sup>15)</sup> 영·정조 때에는 궁중에까지 전파되어 애독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sup>16)</sup>

14) 書名은 朱子の 「送林熙之」라는 시 5수 가운데 마지막 시의 첫째 구 “옛 거울을 거둬 닦으려면 옛 방법이 필요하다네. [古鏡重磨要古方]”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熙之는 林大春의 字이다. 주자가 말한 古鏡은 마음을 비유한 말이며 古方은 敬 공부를 비유한 말이다. 『고경중마방』은 韓愈의 五箴과 程頤의 四勿箴, 張載의 東西銘을 각각 5편, 4편, 2편으로 세분하였으며, 종류별로 분류하면 箴 19편, 銘 54편, 贊 4편으로 銘이 가장 많다.

15) 서수용, 국역 『고경중마방』,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 도서출판 한빛, 2014, 5면 참조.

16) 김성훈,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과 수양론 - ‘敬’을 강조한 箴·銘 작품을 중심으로」, 『승실어문』 23집, 승실어문학회, 2009, 122면~123면 참조.



### Ⅲ. 신지제의 삶에 나타난 제 양상

#### 1.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 일관한 삶

오봉 신지제는 집안에 있을 때는 효제(孝悌)를 근본으로 삼았고 몸가짐은 충신(忠信)을 위주로 하였다. 8세에 생모 월성박씨(月城朴氏)의 상을 당하였다. 외가인 의흥(義興)에는 어머니가 시집오기 전의 방을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신지제는 어려서부터 외가를 오갔는데, 생모 사후에는 방 밖에 도착하여 벽 주위를 돌면서 창문을 두들기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피 울었다. 이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다. 10세에 부친이 계모 오씨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신지제는 오씨를 생모처럼 봉양하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계해년(1623) 10월에 風痺를 앓아 홀로 병 조섭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계모 吳氏도 병을 앓았다. 공은 병든 몸을 억지로 이끌고 오씨에게로 가서 직접 탕약을 달여드렸다. 오씨에 대한 병간호는 겨울 석 달 동안 계속되어 원기가 거의 소진될 정도였다. 자제와 친족들이 만류하였으나 고집을 피우며 듣지 않아 결국 병이 깊어지게 되었다. 오씨의 병이 위독할 때 공도 숨이 곧 끊어지려 하였는데, 자제들이 공을 가마에 태워 집으로 돌아올 때도 어머니가 무엇을 잡수셨냐며 묻고 흐느끼기만 하였다. 설날그믐에 오씨가 운명하였고 공의 병도 위독하여 의식이 없는 지경이었다. 시중드는 이가 사탕을 입에 넣어 주니 더 삼키지 못하고 다만 가느다란 소리로 “이것을 어머니께 드렸느냐?”라는 하였다. 갑자년(1624) 정월 8일에 “어머니 병환은 어떠냐?”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숨을 거두었다.<sup>17)</sup>

이렇듯 신지제는 『맹자』에서 말한 양지(養志)와 양구체(養口體)를 모두 실천하였다.<sup>18)</sup> 또한 맹종(孟宗)과 왕상(王祥)의 효행에 견주어도 전

17) 『梧峯集』 「附錄」 上行狀(李民賓 撰) 참조.

18) 『맹자』 「離婁 上」에, 증자가 부친 曾皙을 봉양할 때의 일과 증자의 아들이 증자를 봉양할 때의 일을 비교해 거론하면서 효행은 비슷하지만 증자는 부모의 뜻을 봉양하

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sup>19)</sup>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신지제가 평소 『맹자』와 『소학』을 탐독하였고,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형을 엄친(嚴親)처럼 섬겼는데, 임진왜란 때 형이 왜적에게 죽임을 당하자 달려가 구원하지 못한 것을 늘 애석해하였다. 그리하여 직접 형의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주었으며 고아가 된 조카를 친자식처럼 돌보며 자신의 농토까지 제전(祭田)으로 쓰도록 나누어 주었다.

앞에서 살펴보듯이 신지제는 28세 때인 1589년 4월에 이단(異端)에 대해서 논한 대책문으로 문과에 장원하였다. 그리고는 5월에 무공랑(務功郎 정7품)의 품계에 사삼시 직장(司贍寺直長 종7품)이라는 행직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1591년 봄에 내직인 사헌부감찰(정6품)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내직보다는 외직인 예안현감(종6품)을 자청하였다. 이때 학봉 김성일이 안타까워하며,

“처음 벼슬길에 나왔거늘 어찌 이리 급하게 외직을 구하는가? 머지않아 조정에서 자네를 병조 낭관에 천거하려 하니, 어찌 조금 기다리지 않는가?”<sup>20)</sup>

이에, 신지제가 대답하기를

“벼슬길이 트이고 막히는 것은 운수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예안현은 고

---

였고 [養志] 증자의 아들은 부모의 몸만 봉양한 것 [養口體] 이라며 진정한 효도는 뜻을 봉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9) 三國 시대 吳나라의 효자 孟宗은 어느 겨울철에 자기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어하므로, 그가 대밭에 들어가서 슬피 탄식하자 갑자기 죽순이 나타났다는 고사가 있다. 또한 晉나라 때 효자 王祥이 어느 추운 겨울날에 자기 어머니가 생어(生魚)를 먹고 싶어 하자, 그가 꿩꿩 얼어붙은 강으로 나가서 옷을 벗고 얼음 위에 드러누워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던 차에 갑자기 얼음이 저절로 깨지면서 잉어 두 마리가 튀어나오므로, 이것을 가져다가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이런 일들은 다 자식의 큰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소치라고 한다. 『三國志 卷48 孟浩傳註』 『晉書 卷33 王祥列傳』.

20) 李民賓, 『紫巖集』 卷3, 「申梧峯行狀」, “仕進之初, 何汲汲求外補乎? 近日朝議將薦君兵郎, 盍少待乎?”

향 집과 가까워서 부모님을 모시기에 편합니다.”<sup>21)</sup>

라고 하였다.

관직의 고저(高低)와 난편(難便)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 가까워서 효를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의 효성은 제 몸이 병들어 죽는 순간까지 변함없었다.

1613년에 창원부사에 제수되어 5년간 역임하다가 1618년 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지은 시를 「회산잡영(檜山雜詠)」이라 명명하였는데, 여기에는 창원 지역의 풍습과 백성들의 고달픈 삶, 그리고 군주에 대한 연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未有涓埃答聖朝  
白頭縣綬且逍遙  
漆園蝴蝶來蓬栩  
合浦明珠去寂寥  
烏鵲啁枝林影黑  
魚龍鬪海浪聲驕  
無端枕上三更夢  
露蓋星冠謁紫霄

임금께 티끌 만한 보답도 못하고  
백발로 수령이 되어 또 소요하네  
칠원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오니  
합포엔 명주가 사라져 쓸쓸해졌네  
까막까지 우는 가지엔 숲 그림자가 검고  
어룡이 싸우는 바다엔 파도 소리 거세네  
까닭 없이 한밤중의 꿈자리에서  
급히 의관 갖추어 궁궐 찾아가네<sup>22)</sup>

칠원은 몽현(蒙縣)의 칠원리(漆園吏)를 지낸 장자(莊子)를 가리킨다. 장자가 나비가 된 호접몽은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노니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합포에는 구슬이 생산되어 백성들이 그것을 캐어 먹고 살았으나, 중간에 태수들이 탐욕을 부려서 구슬로 사리(私利)를 채우려 하여, 구슬이 문득 다른 고을로 옮겨 가 버리고 굶어 죽는 자가 길에 가득하였데, 한(漢)나라 맹상(孟嘗)이 합포 태수가 되어 선정을 베풀자 1년 만에 구슬이 다시 돌아온 고사가 있다. 3구와 4구는 자유분방한 바닷가로 왔으나 수령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기에 골몰한 채 선정을 베풀

21) 같은 글, “仕路通塞有數, 且縣近庭闈, 便於省養.”

22) 『梧峯集』 卷2, 「檜山雜詠上」.

지 않아 가난한 고을이 되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5,6구는 시간적 배경과 창원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였고, 7,8구는 꿈에서라도 임금에게 찾아가고픈 연군(戀君)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회산잡영』에는 신지제의 애민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가 매우 많다. 이 가운데 우국충정이 드러난 시 한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雪後寒威繁	눈 그치고 추위가 맹위를 떨쳐서
稜稜楚國天	초국의 날씨 또한 으슬으슬하네
井堅稀夜汲	우물이 얼어 밤에 물 길기 힘들고
薪貴斷朝煙	땀감 귀해져서 아침밥도 못 짓네
絕塞防猶急	외딴 변방 방비는 아직도 급한데
荒年賦未蠲	흉년인데도 세금은 줄어들지 않네
蒼生多疾苦	백성들은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데
誰達九重筵	누라서 대궐에 진달하여 줄까나 <sup>23)</sup>

추위 때문에 물도 못 길고 아침밥도 못 짓는 힘든 현실을 고발하면서 변방이라 왜구의 재침을 방지해야 하는 실정과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견감(蠲減) 없는 세금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을 매우 찡찡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지제는 이러한 현실을 대궐에 알려 구제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 2. 목민관으로서의 청렴과 선정(善政)

신지제는 1600년에 전라도사(全羅都事)에 제수되었다. 이 무렵에 지은 시에 그의 청렴성과 부와 명예를 초월한 면모가 잘 드러나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黃橘似黃金	황귤은 황금과 비슷한데
-------	--------------

23) 『梧峯集』 卷3, 「苦寒吟」 둘째 수.

黃金人所珍	남들은 황금을 보물로 여기나
伊我愛黃橘	나는야 황귤을 좋아하니
何者得其眞	어느 쪽이 참됨을 얻었나 <sup>24)</sup>

최영(崔瑩, 1316~1388)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으나, 신지제는 황금 보기를 황귤 같이 하였다. 남들은 황금을 보물로 생각하나, 신지제는 황귤을 보물로 여기면서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아래 시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黃金無香橘有香	황금은 향기 없으나 귤은 향기 있고
嚼來何況味又甘	씹는 맛이 최고이고 맛 또한 달구나
有香有甘又有色	좋은 향과 단맛에 빛깔마저 고우니
人寶則一我寶三	남들은 한 개 보물 나는 세 가지 보물 <sup>25)</sup>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 1431 ~1518)의 ‘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이라는 유계(遺誡)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김계행은 목민관이 되어서는 청렴결백을 실천하다가 무오사화 때 고향인 안동으로 낙향한 청백리의 상징적 인물이다. 신지제는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황금보다 좋은 향기가 나고 단맛이 있고 예쁜 색깔을 지닌 황금을 더 좋아하였다. 이는 황금과 황귤의 단순비교이기보다 물질적 풍요보다 황귤이라는 과일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고자 함이었다. 말하자면 부와 명예보다는 청렴한 관리로서 직분에 충실을 기하고자 한 선비정신이 아닐 수 없다.

신지제는 1601년 8월에 전주부 판관에 제수되었는데, 번다한 일을 마음을 다해 처결하여 모두 이치에 맞게 하였다. 또 강한 이를 억누르고 약한 이를 도와서 위엄과 은혜가 넘쳐났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선정비를 세워 뜻을 기렸다.

1602년에 전라도 암행어사에 차출되어서는 관리의 폐단을 없애고 백성의 고통을 보듬으며 실적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명백하여 권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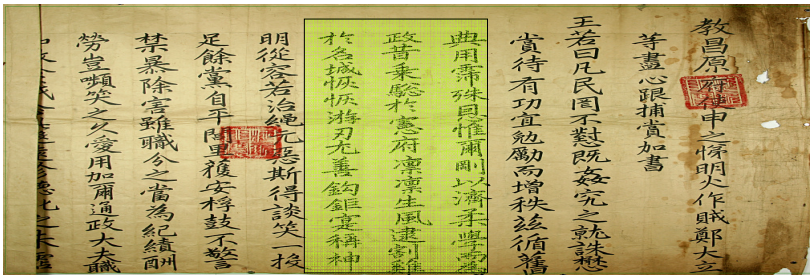
24) 『梧峯集』 卷1, 「詠橘」 첫째 수.

25) 『梧峯集』 卷1, 「詠橘」 둘째 수.

있다 해서 봐주는 일이 없었으니 고을 수령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1613년(52세) 8월에 창원 부사에 체수되었다. 신지제가 사은숙배하고 서울 집에 물러나 있는데 권세가가 청탁하며 이르기를 “제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송사하러 올 것입니다. 저를 봐서 잘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하였다. 이에 “공정한 마음으로 밝게 들으면 시비는 저절로 분별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청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청탁한 이가 얼굴이 붉어진 채로 나가서 끝내 송사(訟事)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1617년(56세) 창원부사 시절에 도적 정대립(鄭大立)을 잡은 일로 인하여 통정대부의 품계에 올랐다. 당시 정대립은 그의 무리 수천 명을 데리고 바다와 섬 등지에 출몰하면서 고을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약탈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러 창원 일대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골칫거리였다. 이에 신지제가 근포(跟捕) 죄인을 정탐하고 수사하여 체포(함)하여 정대립 이하 두목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남은 무리까지도 와해시켰다. 이로 인해 바닷가 여러 고을이 편안해졌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통정대부의 품계에 올랐고, 그 교서가 오랫동안 종가에 보관되어 오다가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었다. 교서 내용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생각건대, 너는 강함으로 부드러움을 구제하고, 충분히 배운 뒤에 정사에 임하였다. 예전 사헌부에서 이미 늙은 기상이 있었는데, 이름난 고을을 다

스림에도 훌륭한 솜씨를 발휘하였다.<sup>26)</sup>

한편 내암(萊庵) 정인홍(鄭仁弘, 1535~1623)이 함천(陝川)에 있으면서 멀리 조정의 권력을 잡고 흔들었지만, 신지제는 가까운 근방의 고을 수령으로 있는 여섯 해 동안 한 번도 그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정인홍은 신지제가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미워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말을 지어내어 “고을 수령이 궁궐에 납부할 면포 40 필을 사사로이 사용하였다.”라고 하며 정인홍에게 알리니, 정인홍이 말하기를 “나는 그가 행한 정치를 들어 왔다. 필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하였다. 신지제는 이 말을 듣고 향당(鄕堂)에 고을 백성들을 모아 면포 수를 조사하게 하되 물건의 유무만을 살피고 말을 지어낸 자가 누구인지 더는 묻지 않았다. 신지제가 체직되어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이 와서 길가에서 전별하고 뒤따라오며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신지제는 병란 중에 굶어 죽은 주검이 길가에 즐비하자, 마음을 다해 구제하여 날마다 한 말의 곡식을 주며 말하기를,

“인정이란 많으면 쉽게 써버리게 마련인데 급할 때마다 돕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신지제의 구휼에 힘입은 고을 백성들은 구렁텅이에 튀구는 일을 면하게 되었다. 원근의 유리결식하던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 신지제가 말하기를,

“모두 다 같은 백성이니 차마 피차를 구분하지 못하겠다.”

하고는 마침내 아울러 구호하여 목숨을 보전한 이가 수천여 명이었다.

또한 비안현감에게 편지를 보내어 장례비용이 없어 부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주(尙州)<sup>27)</sup>의 선비 칠봉(七峯) 황시간(黃時幹, 1558

26) 『梧峯集』 「年譜」 56세조 “敎書略曰: ‘惟爾剛以濟柔, 學而爲政, 昔乘聰於憲府, 凜凜生風, 逮割雞於名城, 恢恢游刃.’”

~1642)의 장례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편지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尙州에 사는 士人 黃廷幹<sup>28)</sup>은 곧 저의 옛 친구입니다. 이제 갈 곳을 잃어 관할구역인 渚谷村으로 이주했습니다. 5월에 부친상을 당하였으나 비용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만약 은혜를 베풀어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조금 보내 주신다면 어찌 황군만 감사하겠습니까? 저 또한 친구의 일에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윤달 25일에 영구를 받들어 고향에 返葬할 예정인데, 노정이 金堂을 거쳐서 威萬과 立石 등지를 지나갈 것입니다. 바라건대, 길가에 사는 민가에서 네댓 마리의 큰 소를 동원하여 잘 호송하도록 하여 운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황군은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지 몰라 할 것입니다. 무릇 민가의 喪事도 오히려 달려가서 도와야 하는 법인데, 더구나 사대부 집안이 이런 망극한 아픔을 당하였으니, 어찌 차마 어려운 사정을 보고서도 구휼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sup>29)</sup>

황시간의 초명은 황정간(黃廷幹)으로, 자는 공직(公直), 호는 칠봉(七峯) 또는 도천(道川),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임진왜란에 왜적을 피해 소백산 아래 은풍현(殷豐縣)에 살다가 1593년 5월에 아버지 상을 당하여 예천(醴泉) 저곡(渚谷)에 권핍하였다. 여름에는 학질이 심해서 그해 겨울에 고향인 상주(현 문경) 산양(山陽) 대도리(大道里) 복현(浞峴) 선산에 반장하였다.<sup>30)</sup> 황시간은 뒷날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와 함께 서애 류성룡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정경세(鄭經世)·이준(李峻)·전식

27) 황시간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상으론 상주목 문경현 사람이었으나, 현재는 문경시에 속한다.

28) 『梧峯集』에는 黃廷幹으로 되어 있으나 活齋 李渠가 찬한 「通訓大夫行刑曹正郎長水黃公行狀草記」와 『장수황씨세보』를 근거로 黃廷幹으로 수정하였다.

29) 『梧峯集』 卷7 「與屏山守某書」, “就中恐達尙州居士人黃廷幹, 乃生昔年友也. 今失所轉入治內渚谷村, 五月中丁父憂, 無財至今未葬, 甚可矜憫. 若蒙眷恤, 薄賻喪需, 則豈但黃君知感? 生亦爲故人無憾也. 以閏月廿五日, 奉柩將返故土, 路由金堂過威萬立石等地, 乞命路傍民家出四五大牛, 扶護過送, 俾免顛倒之患, 則爲黃君懷, 不知當作何如報也. 凡在民喪, 尚可匍匐救之, 況士夫間遭此罔極之痛, 豈宜忍視其窘而不爲之恤乎?”

30) 黃時幹, 『道川詩稿草』, 「道川年譜」 참조.



(全滉)과 함께 상산사로(商山四老)로 일컬어졌으며, 특히 시에 특징이 있어 ‘황시정부(黃詩鄭賦)’<sup>31)</sup>라는 명망을 듣기도 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살펴본 신지제의 구휼정신은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우정이었다. 친구의 딱한 처지를 도우려는 신지제의 구휼정신은 목민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 3. 임란 극복의 활약상

20만 대군을 이끌고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착륙한 왜적들은 불과 하루 만에 동래를 집어삼켰고, 그 여세를 몰아 12일 만인 4월 25일에 상주를 함락하였다. 또 28일에는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쳐서 왜적과 결전을 벌였으나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접한 국왕 선조(宣祖)는 눈물을 삼키며 도성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sup>32)</sup> 이렇게 조선군이 왜군에게 무기력하게 패하게 된 것은 평상시 전란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탓이다. 한편 상주가 왜적의 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안동부사 정희적(鄭熙績, 1541~?)은 영천(永川)에서 조방장(助防將)을 만나 도망할 계획을 세우고는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나서 관인을 버리고 달아났다.<sup>33)</sup> 이 소식을 접한 안동 인근의 수령들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성을 비우고 도망하여 행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예안현감 신지제는 평소와 다름없이 성을 지키며 치안 유지에 진력하였다.

이때 경상도안집사로 있던 백암(栢巖) 김복(金玚, 1540~1616)이 조정 에 장계를 올려 신지제로 하여금 안동부사직을 겸하여 안동과 예안의 병사로써 의성(義城) 등지에 있던 왜적을 방어하게 하였다.

31) 황시간은 詩에 뛰어나고 정경세는 賦에 뛰어나다는 말이다.

32) 鄭琢, 『藥圃集』 卷4, 「避難行錄 上」.

33) 金垓, 『鄕兵日記』 참조.

이렇게 위급한 때를 당해서는 인재를 얻는 것이 시급합니다. 예안 지역은 현감 申之梯가 列郡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우뚝이 자신의 고을을 지키면서 관아의 일이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게 하였으니, 그 충성과 절의가 참으로 가상합니다.”<sup>34)</sup>

하급기관의 관리가 상급기관의 수령을 겸한 예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지제의 직무수행 능력과 위기대처 능력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신지제는 6월 1일 배용길(裴龍吉), 김용(金涌), 김륵(金玊) 등과 함께 의병 모집을 논의하고, 6월 11일 예안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는 안동 의병보다 한 달 가량 앞선다. 예안의 사족들은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추대하였고, 매암(梅巖) 이숙량(李叔樑)은 격문을 작성하여 궐기를 촉구하였다. 도총사(都摠使)에는 금응훈(琴應薰), 정제장(整齊將)에는 김택룡(金澤龍)과 김기(金圻), 부장(副將)에는 김광도(金光道)와 김광적(金光績), 군량(軍糧)에는 이영도(李詠道), 군관(軍官)에는 김강(金岡)·채연(蔡衍)·김평(金坪), 장서(掌書)에는 금경(琴憬), 유사(有司)는 류의(柳誼)와 박몽담(朴夢聃), 기병(騎兵)에는 황진기(黃振紀), 우성적(禹成績) 외 53명, 보병(步兵)은 김사순(金士純), 김지(金址) 외 365명이다.

한편 조목(趙穆)·금응협(琴應夾)·김부륵(金富倫)·서천일(徐千一)·이숙량(李叔樑) 외 41명은 연로한 탓에 군사조련이나 참전 등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군사들의 식량을 보급해주는 군량의 수요를 도왔다.<sup>35)</sup>

이때 월천 조목은 신지제에게 다음과 같은 시로 화답을 하였다.

風雨秋堂欲暮時  
滿戕奎壁一筒持

비바람에 추당이 저물려고 할 때에  
보내온 죽통에는 종이 가득 명편이네

34) 『梧峯集』 「年譜」 31세조, “安集使啓曰; ‘當此危亂之時, 得人爲急, 禮安則縣監申之梯, 挺然自守於列郡奔潰之際, 使官事略無所虧, 其忠義可嘉云.’” 참조.

35) 황만기, 『경북지역 임진란사』 권3, 「임란기 예안지역의 유학과 학맥」,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8, 재인용.

波瀾起伏詞何壯  
肝膽精忠鬼亦悲  
自古強梁終殄滅  
只今籌策儘雄奇  
天心不改人思漢  
重觀朝儀舊殿螭

기복을 질탕하게 둔 글이 매우 씩씩하고  
순수하고 충성된 마음은 귀신도 슬퍼하네  
예로부터 흉포한 자들은 끝내 죽었으니  
지금의 계획은 모두 웅대하고 기이하네  
천심이 바뀌지 않아 사람들이 한나라를 생각하니  
옛 궁궐에서 조정 의례를 다시 보리라<sup>36)</sup>

7구와 8구는 전한(前漢)이 왕망(王莽)에 의하여 멸망한 뒤에도 한나라 유민들이 여전히 한나라의 치세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후한(後漢)을 건국하게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왜적에 의하여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되었으나 백성들이 조선 왕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선이 중흥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신지제는 관군과 급조된 예안 의병을 이끌고 용궁 전투에 나섰다가 패전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이는 갑작스럽게 조직되어 군사조련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오합지졸의 의병들이었기에 필연적인 전세였다. 이 전투에서 배용길의 종제(從弟)인 배인길(裵寅吉)이 참전하여 수많은 왜적의 수급을 참획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신지제 역시 홀로 말을 타고 있다가 왜적들에게 포위되어 죽을 상황에 직면했다가 도적 떼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이 유인즉 신지제가 예전에 사형선고를 받은 도적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석방해준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난리 소식을 접하고 의병에 가담했다가 위기에 처한 신지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구원한 것이었다.

전세의 불리함을 인지한 신지제는 방백에게 편지를 보내어 전란을 겪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과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네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표상의 규정이 분명하지 못하여 사기를 진작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오획(烏獲)<sup>37)</sup> 같은 엄청난 힘과

36) 趙穆, 『月川集』 卷1, 「次邑主申順夫(之悌)」.

37) 오획(烏獲) : 전국시대 진(秦)나라의 역사(力士)이다.

궁예(窮羿)<sup>38)</sup> 같은 활 솜씨가 없더라도 누구든 스스로 분발하여 저마다 죽음을 각오한다면 질름발이 병사라 할지라도 몽둥이를 만들어서 적의 단단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상대하여 매질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후한 포상 아래에는 반드시 용맹한 장부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육도삼략(六韜三略)』의 병법(兵法)을 인용하면서 일반 백성들은 포상만 후하게 주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군율이 공정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승복시키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군령은 엄격함을 중시하여 죄가 가벼우면 장을 치고 무거우면 목을 베는 것이지만, 왜적들의 공격에 장수와 관리들이 성을 비우고 달아나는 일이 있어도 죽이지 않았으면서 용궁 전투에서 달아난 70여 명의 병사들을 모두 죽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지나친 처분이라고 피력하였다.

셋째, 비장(裨將)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지적하였다. 선발된 10명의 비장들은 토포(討捕)의 일에는 전혀 관여 없고 창고의 곡식만 축내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넷째, 무기고에 비축된 무기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비 확충을 서둘러야 함을 설교하였다. 화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나무와 부레풀을 구하기 쉽지 않으므로, 해변 고을로 하여금 화살의 재료인 대나무를 베어 실어오게 하고 다른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접착제의 재료인 부레풀을 보내오게 하라는 주장이다.<sup>39)</sup>

1593년에 올린 이 편지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충정이 잘 나타나 있다. 평시에는 한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의 신분이지만, 전시에서는 병법의 전략을 잘 활용하여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미증유의 국난은 종식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하여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이가 속출하고 심지어 역병까지 들게

38) 궁예(窮羿) : 유궁후 예(有窮后羿)의 준말로, 하(夏)나라 때 신궁(神弓)인 예(羿)가 태강(太康)을 폐위하고 국호(國號)를 ‘유궁(有窮)’이라 칭하였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39) 『梧峯集 別集』 書, 「上方伯書」 참조.

되었다. 신지제는 참담하고 어지러운 현장을 목도하며 다음과 같이 목멘 소리를 낸다.

靑丘氣數何太蹇  
 巨寇東來兵禍酷  
 經年劒戟殺氣高  
 血流溟海骨填谷  
 氛蔽東南虐焰盛  
 公蓄私藏付回祿  
 生民流落失舊居  
 老耨登山草爲屋  
 有司調糧簿書急  
 貧人富人傾斗粟  
 飢饉荐臻民嗷嗷  
 東家肉寒西家哭  
 宛宛赤子路傍棄  
 命在須臾誰顧復  
 菜顏盈道相繼斃  
 烏鳶集啄狗犬簇  
 瘴氣流行癘疫熾  
 餘民死亡日相續  
 前年十室今數家  
 子孤妻寡老者獨  
 方伯雖有勸耕書  
 其奈莫肯種黍菽  
 病倅憂傷終奈何  
 對案不敢嘆公餽

조선의 운수 왜 이리도 어긋났는지  
 동쪽 왜구 몰려와 병화가 참혹하네  
 해를 넘긴 전란으로 살기가 드세어  
 골짜기 메운 시신의 피가 바다로 흘러드네  
 영남이 사나운 불길에 휩싸여  
 관창과 사창이 죄다 타버렸구나  
 백성은 옛 터전을 잃고 떠돌며  
 노약자 산으로 피해 떠집을 지었네  
 관리가 군량 조달로 곡식 독촉하니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곳간째 바치네  
 거둬 닦친 기근에 백성들 아우성이고  
 여기저기 추위에 떨거나 곡하는 소리뿐  
 갓난아이 길가에 버려져 있어도  
 경각에 달린 목숨 누가 돌보라  
 굶어 죽은 시신들이 길을 메웠고  
 까마귀와 들개들 물어뜯고 있네  
 습한 기운에 역병마저 창궐하니  
 남은 백성마저 날마다 죽어가네  
 작년에 열 채가 지금 두어 채만 남아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노인뿐이네  
 방백이 농사 힘쓰라는 글을 내려도  
 곡식을 심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하랴  
 병든 수령 걱정한들 끝내 어쩔 수 없어  
 밥상을 마주해도 차마 음식 먹지 못하네<sup>40)</sup>

시인은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드라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편의 서사시를 보는 듯한 이 시는

40) 『梧峯集』 卷1, 「病中漫述」.

『오봉집』의 제일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다.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은 이 시를 두고 “온후하고 화평한 「회산잡영(檜山雜詠)」이나 「구당만록」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시대를 아파하고 시속을 풍자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였는데, 충후(忠厚)하고 측달(惻怛)하여 우뚝이 시인의 유음(遺音)이 있었다.”<sup>41)</sup>라고 평하였다. 이광정이 말한 애군우국(愛君憂國)과 상시분속(傷時憤俗)은 두보 시가 지나는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시경』이 내포한 주제를 총괄한 표현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지제가 추구하고자 한시 창작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신지제는 또 정유재란 당시 순찰사종사관에 제수되어 관찰사 이용순(李用淳)의 명으로 팔공산성에 들어가 의성 현령(義城縣令) 여대로(呂大老) 등과 함께 목숨을 바쳐 성을 굳게 지켜내었고,<sup>42)</sup> 화왕산성(火旺山城)으로 가서 망우당(忘憂堂) 광재우(郭再祐)와 동맹하여 의병을 이끌기도 하였다.<sup>43)</sup>

#### 4. 산수에 대한 흥취

신지제는 신묘년(1591) 가을에 예안현감에 부임하였다. 현감으로 부임한 4년 동안 군무에 시달리느라 꿈에 그리던 청량산 유람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나에게는 산수를 즐길 인연이 없구나!”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1594년 가을에 청량산을 유람하였다. 이때는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시기였다.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기에 전시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신지제는 관찰사 홍이상

41) 李光庭, 『訥隱集』 卷7, 「梧峯文集序」, “至其愛君憂國傷時隱俗, 而不能自己, 忠厚惻怛, 蔚然風人之遺音矣.”

42) 『梧峯集』 「年譜」 36세조 “時倭寇再窺, 方伯李用淳先入山城, 因督列邑守宰, 爲出戰入守計. 先生偕入, 與義城縣令呂大老·義興縣監李大期·慶山縣令趙亨道·慶州府尹朴毅長·新寧縣監孫起陽·青松府使朴惟仁·河陽縣監文貫道·蔚山郡守金太虛·永川郡守洪季男·防禦使權應銖諸公, 一心守死, 終始同難. 事載孫公所著公山誌.”

43) 같은 글 같은 곳, “赴火旺山城, 與忘憂郭公再祐, 同盟倡義.”

(洪履祥, 1549~1615)의 명령으로 청량산을 거점으로 왜적과 대항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훗날 오가산(吾家山)이라 불리게 된 청량산을 오르게 된다. 9월 3일 출발하여 5일 돌아오는 2박 3일의 여정이었다. 첫째 날은 예안관아를 출발하여 은계 → 고산정 → 박석 촌점 → 연대사 지장전을 유람하는 코스이다. 둘째 날은 축융봉 → 치위암 → 총명수 → 안중암 → 상청량암 → 하청량암 → 극일암 → 고산정의 코스이고, 마지막 날은 고산정에서 예안관아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여행 첫날에 신지제는 고산정에 잠시 들렀다가 성재 금난수를 만나 퇴계의 유묵을 구경한 뒤에 청량산으로 들어갔다. 이때 길이 미끄러워 말을 버리고 소를 타고 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였다. 골짜기 끝에 이르자 비로소 높이 솟은 몇 개의 봉우리가 보였다. 9월이라서 알록달록하게 화장한 청량산은 처음 맞는 손님을 기쁘게 대해 주었다. 시인은 청량산이 내준 관대한 호의에 흠뻑 취하게 된다. 이때의 마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碧石丹楓面面圍	사방 곳곳 푸른 바위 붉은 단풍
山中無物不清奇	산중에는 죄다 맑고 기이한 물건
何年解却腰間綬	언제쯤 벼슬살이에서 물러나서
瀟灑巖頭伴羽衣	깨끗한 바위의 학들과 짝할까나 <sup>44)</sup>

신지제는 청량산 중심인 연대사(蓮臺寺)에 들어갔다. 절에 들어가 보니 절은 바위 밑에 기대어 지었는데 그다지 높거나 크지 않았고 거처하는 승려도 수십 명이 안 되었다. 연대사의 현칙(玄則)이라는 승려가 신지제 일행을 안내해주었다. 신지제는 주세봉(周世鵬)의 유람록에서 숙지한 열두 봉우리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현칙은 연대사의 왼쪽에 있는 것이 금탑봉(金塔峯)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연화봉(蓮花峯)이며, 뒤쪽에 있는 것이 선학봉(仙鶴峯)이라 하였다. 또 금탑봉의 뒤에는 경일봉(擎日峯)이 있고, 선학봉의 뒤에는 연적봉(硯滴峯)·탁필봉(卓筆峯)·자소봉

44) 『梧峯集』 卷1, 「與金器仲 罔 分韻千仞岡頭一振衣 得千岡一衣等字」 네 번째 수.

(紫霄峯)·자란봉(紫鸞峯)이 있으며, 연화봉 바깥쪽으로 내장인봉·외장인봉·향로봉(香爐峯)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튿날에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축융봉에 올랐다. 이곳에 오른 이유는 오래된 산성을 거점으로 진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축융봉에는 궁궐터가 있는데 깨진 기와와 부서진 벽돌이 간혹 수풀 속에 드러나 있고, 또 어정(御井)과 육부(六部)를 설치한 자리가 각각 있었으며, 남대문(南大門)과 수구문(水口門)이란 곳은 그 자취가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산성의 축조 시기와 축조한 왕에 대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상고할 수 없었다.

祝融半天宇  
雉堞古基餘  
地利猶堪據  
天時自不如  
函關曾未恃  
劔閣亦難居  
所守惟仁德  
斯言莫謂虛

하늘 높이 치솟은 축융봉에  
옛 성가퀴 터가 남아 있구나  
지리는 거점으로 삼을 만하나  
천시는 본래 지리만 못하다네  
함곡관으로 의지하기엔 어렵고  
검각관으로 삼기에도 어렵구나  
수호할 길은 인화에 달려 있으니  
이 말이 헛되다고 말하지 마소<sup>45)</sup>

축융봉을 거점으로 하는 산성 일대가 지리적으로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함곡관이나 검각처럼 요새지로 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신지체는 전쟁의 승리 요건으로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는 맹자의 말에 동의하며 인화가 가장 중요함을 이 한 편의 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임무를 마친 신지체는 다시 어제 들른 금탑봉 일대로 이동하여 미처 보지 못한 곳을 유람하기에 이른다. 청량산 열두 봉우리는 주지의 사실이고, 신지체가 유람할 당대에는 이곳에 24개의 암자가 있었다. 이곳의 기이한 경치를 다 둘러보아야만 이 산의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연

45) 『梧峯集』 卷1, 「山城起感」.



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신지제는 어느새 내적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고민을 풀 방법은 하루빨리 벼슬살이를 던져 버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다. 그러나 시인은 곧장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그리하여 다음 날 아침에 벌어질 일을 미리 걱정하게 된다.

時來發豪氣	때가 좋아서 호기가 발동하여
浪吟不求律	율격 따지지 않고 마음껏 읊네
還嗟塵世嬰	되려 슬프나니, 속세에 얽매어
勝遊無多日	멋진 유람 할 날이 많지 않음이
明朝出洞門	내일 아침 골짜ق 문을 벗어나면
世路苦傾跌	괴로운 세상살이로 분주하겠지 <sup>46)</sup>

신지제는 청량산 열두 봉우리를 완주하는 코스가 아닌 연대사 주변을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훑어본 것이어서 흡족한 유람이 될 수 없었다. 산수자연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그였으나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平生夢想隔名山	평소 그리워만하고 오르지 못했던 명산
纔到名山又未閒	겨우 명산에 도착했건만 또 여유가 없네
出洞回頭有餘戀	골짜ق을 나오며 돌아보니 아쉬움이 남는대
何時倚杖紫霄間	언제쯤 또다시 자소봉을 오를 수 있을까 <sup>47)</sup>

위 인용시는 청량산을 나오면서 읊은 것으로, 신지제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자소봉은 청량산 12봉우리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을 등반하는 것이 바로 청량산 전체를 유람한 결과를 낳는다. 신지제는 꿈에도 그리던 청량산을 가까스로 찾아 왔으나 전시(戰時)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수박 곱핥기’ 식의 유람은 청량산의 진면목을 체득할

46) 『梧峯集』 卷1, 「與金器仲 岡 分韻 千仞岡頭一振衣 得千岡一衣等字」 세 번째 수.

47) 『梧峯集』 卷1, 「出山」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기약할 수 없는 청량산 유람을 못내 애석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신지제는 비록 짧은 여행이었지만 지식인의 자세를 잃지 않고 「청량산 유람기」를 남겼다. 여기에서 그가 청량산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엔 명산이 한둘이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심이 일어나게 하는 산은 청량산인데, 퇴계 선생이 그 아래에 사시면서 평소 왕래하며 유람 하신 곳이기 때문이다. 온갖 바위와 골짜기에는 아직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 자취가 남아 있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음풍농월의 제재가 되지 않음이 없었다. 열두 봉우리를 바라보면 우뚝하여 미칠 수 없는 점이 있고, 늠름하여 범할 수 없는 점이 있으며, 힘차고 웅장하여 귀의할만한 점이 있고, 단아하고 씩씩하며 엄숙하고 굳세어 우러러 존경할만한 점이 있다. 산의 준엄함은 나약한 자로 하여금 뜻을 세우게 하며, 산의 청량함은 탐욕스런 자로 하여금 청렴하게 한다. 그러한즉 내가 청량산을 좋아하는 것은 산 하나를 좋아해서일 뿐 만이 아니다.<sup>48)</sup>

당나라 유우석(劉禹錫)은 「누실명(陋室銘)」에서, ‘산은 높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선이 있으면 이름이 나고, 물은 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이 있으면 신령해진다.[山不在高 有仙則名 水不在深 有龍則靈]’고 했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신지제가 청량산을 좋아하게 된 것은 이곳에 퇴계라는 불세출의 현인이 살았기 때문이다. 신지제에게 있어 청량산은 단순한 유상(遊賞)의 대상이 아니고, 훌륭한 스승이자 삶의 철학인 것이다. 퇴계는 신지제의 나이 9세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퇴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까워하였다. 퇴계가 남

48) 『梧峯集』卷6 「遊清涼山錄」, “東國名山非一, 而有山之令人起敬者, 則曰清涼, 爲有退溪先生居其下, 平生所嘗往來遊賞也. 千巖萬壑尙帶杖履之遺跡, 一草一木, 無非吟弄之餘輝. 望十二峯, 有卓乎不可及者, 有凜然不可犯者, 有磅礴雄偉可依而歸者, 有端莊嚴毅可仰而敬者, 其峭峻使懦者立, 其清涼使貪者廉. 然則余之愛清涼, 不但愛一山而已.”

긴 일언 일구와 폭넓은 학문 세계는 인생의 지남철이 되었다. 또 퇴계의 족적이 묻어 있는 청량산은 신지제에게 있어 퇴계의 인생관과 우주관을 살펴볼 수 있는 성지(聖地)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지제는 젊은 시절 유일재에게 학업을 익히는 도중에도 청량산을 유람하려고 생각했었고, 과거공부하는 10년 동안에도 이곳을 그리워하였으며, 벼슬살이로 전전하는 동안에도 청량산에 대한 향념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3일간의 짧은 여정으로 인해 청량산의 진면목을 체득하지 못한 신지제는 이듬해인 1595년 3월에 다시 이 산을 유람하게 된다. 이때에는 유람기를 작성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계획을 짜서 일정을 소화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충동으로 인한 짧은 유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편의 시가 이해를 돕고 있다.

一脚飛來太白山	태백산 한 자락이 날아든 이곳
去年踏破九秋巒	작년 구월에 이 산을 찾았었네
今朝披入三春雨	오늘 아침 삼월의 비를 맞으며
鶴背仙人夢想間	학을 탄 신선을 꿈에 그리네 <sup>49)</sup>

청량산 치원암은 신라시대의 대유학자인 최치원(崔致遠, 857~?)이 이곳에 와서 독서를 하였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신지제는 최치원의 발자취가 남겨진 곳에서 혹여라도 신선이 된 최치원이 학을 타고 나타나기를 희망해 본다. 치원암 옆에는 총명수가 있는데, 최치원이 이 물을 마시고 총명함을 키웠다는 전설도 있다. 그러나 신지제는 이 말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sup>50)</sup>

신지제는 1618년 3월에 창원부사 직에서 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해 7월에 봉양 구미촌에 정착하여 한가로이 산수에 대한 흥취로 여생을 보내게 된다.

49) 『梧峯集』 別集, 「清涼山次人韻」.

50) 『梧峯集』 卷6 「遊清涼山錄」, “有曰聰明水, 孤雲飲此水而養聰明云. 蓋孤雲神僊中人, 未必不一過于此山, 而讀書養聰明之事, 眞贗不足辨也.”

新卜龜庄一畝寬  
平臨碧澗背蒼巒  
力耕且足供飢飽  
小構聊堪度暑寒  
移竹兼梅存宿契  
喚鷗和鷺託同歡  
從今老矣無餘事  
不信人間道路難

구장에 새 터 잡으니 한 구역이 널찍한데  
시냇물 내려다보이고 푸른 산을 등졌네  
힘써 밭 갈면 주린 배 채우기 충분하고  
집이 작아도 추위와 더위를 견딜 만하네  
대와 매화를 옮겨 심어 오랜 우정 유지하고  
갈매기 해오라기를 불러 함께 기쁨 나누네  
이제부터 하릴없이 노년을 보낼 것이니  
세상살이 험난하다는 말 믿지 못하겠네<sup>51)</sup>

신지체는 오동산(梧桐山) 북쪽에서 나고 자라 그의 호를 ‘오봉’이라 하였다. 노년에 와서는 구수(龜水) 북쪽에 새 거처를 마련하고서 호를 ‘구로(龜老)’라 하였다.<sup>52)</sup> 신지체는 젊어서는 산을 거점으로 생활하였고 노년에는 물과 인연을 맺었다. 이는 산수에 대한 애호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단서이다. 두보는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행로난(行路難)」에서 토로하였다. 우리나라의 문인들은 인생살이의 역경을 「세로난(世路難)」으로 표출하였다. 그러나 57세의 신지체는 인생살이를 역경이나 고난으로 인식하지 않고 벼슬살이에서 찾은 자유로 승화하였다. 그가 새 보금자리로 택한 곳은 배산임수에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였다. 집 주변에는 대와 매화를 심고 물가에는 물새들이 자유로이 노닐고 있다. 산수 자연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숙식 문제에 있어서 기쁨진 음식과 호화저택이 필요 없다. 그저 먹거리는 배를 채우면 만족하였고 잠자리는 작은 집일지라도 몸만 누울 수 있으면 자족하였다. 벼슬살이에서의 자유로움과 산수 자연을 벗 삼아 지내는 한가로움은 노년을 보내는 신지체의 지향점이었다.

51) 『梧峯集』 卷5, 「龜庄卜居」.

52) 『梧峯集』 「年譜」 57세조, “七月卜居龜尾村(先生生長下川梧桐山北, 自號梧峯. 至是卜新居于龜水之陽, 又號龜老.)” 참조.

#### IV. 맺음말

신지제는 유일재 김언기에게 수학하면서 급진적인 학문적 발전을 이루었고, 학봉 김성일을 통한 학문적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는 지식인들의 기본필독서인 『소학』, 『사서삼경』을 위시하여, 그리고 두보시와 『성리대전』 등 각종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퇴계집』을 애독하였으며, 퇴계가 중국의 잠명찬(箴銘贊) 77편을 선집한 『고경중마방』을 통해서 내면의 수양을 완성해갔다.

필자는 본론에서 그의 삶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신지제는 부모에 대한 효행에서 증자와 양지(養志)와 맹종과 왕상의 양구체(養口體)의 두 측면을 두루 겸비하였다. 그의 효행은 나라에 대한 충으로 전이되어 벼슬살이하는 기간 내내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고 권세에 아부하지 않는 청렴한 선비상을 보여주었다. 둘째, 전라도사·전주판관·창원부사로서의 선정과 구휼 정신은 가는 곳마다 선정비를 세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황골을 황금보다 더 좋게 여긴다는 한 편의 시는 관리로서의 청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예안 현감 시절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한 활약상은 신지제가 문무를 겸비한 유자로서의 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방백에게 편지를 보내어 전란을 겪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과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지적한 대목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산수 자연에 대한 흥취에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이는 삶의 지향점이 벼슬살이를 통한 입신양명이 아니고 전원에 묻혀 지내고자 하는 한겨자락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청량산 유람에서의 섬세한 문학적 표현은 그가 시인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본고는 신지제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에 주안점을 두어 논리를 전개하였다. 중간중간 시를 인용하여 분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의 시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향후 신지제의 시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의 시적 면모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嶺南學 제69호(2019)

계획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4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1. 원전 및 문집류

『孟子』, 『三國志』, 『晉書』, 『禮記』, 『長水黃氏世譜』  
金垓, 『鄉兵日記』.  
申之梯, 『梧峯集』.  
申弘望, 『孤松集』.  
李光庭, 『訥隱集』.  
李集, 『活齋集』.  
李民成, 『敬亭集』.  
李民賓, 『紫巖集』.  
張顯光, 『旅軒集』.  
鄭琢, 『藥圃集』.  
趙穆, 『月川集』.  
黃時榦, 『道川詩稿草』

### 2. 저서 및 논문류

서수용, 국역 『고경중마방』,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 도서출판 한빛, 2014.  
이현중 편저, 『동양연표』 탐구당, 2013.

김성훈,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과 수양론 - ‘敬’을 강조한 箴·銘 작품을 중심으로」, 『송실어문』 23집, 송실어문학회, 2009.

박명숙,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梯) 선생(先生)의 생애(生涯)와 학문(學問)」, 『동방예학』 38, 동방예학회, 2017.

한명기, 「임진란 七周甲의 역사적 의미」, 『임진란연구총서』1, 사단법인 임진란정 신문화선양회, 2013.

황만기, 「임란기 예안지역의 유학과 학맥」, 『경북지역 임진란사』 권3,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8.

## Ohbong's studies and the Several aspect of life

Hwang, Man-ki

Ohbong Shin Ji-je achieved radical academic development while studying under Yu Il-jae Kim Eon-gi, and the academic influence of Hakhong Kim Seong-il on him seems not a little. It's been confirmed that he was well versed in diverse books including 『Sohak』 and the seven Chinese Confucian classics, which were intellectuals' must-read, Du Fu's poems, and Seongridaejeon. He also loved reading 『the Collection of Toegye's works』, and he completed inner discipline through 『Kokyeongjungmabang』 in it. In this paper, Ohbong's studies and life were categorized into several characteristics and analyzed. He practiced filial behaviors with both aspects of Zengzi's Yangji(養志) and Meng Zong's and Wang Xiang's Yangguche(養口體). His filial piety was transferred to loyalty to the nation, and showed a model of an upright classical scholar who refused illegal requests and didn't flatter power all through his official career. In addition, his just rule and spirit to help the needy as a governor brought about the outcome of erection of a Tarubi monument wherever he went. Moreover, his wise overcoming of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while serving as a Hyeongam in Yeahn sheds a new light on him as a faithful subject who was good at both literary and martial arts. Also, the delicate literary expressions of <Sightseeing to Mt.



Cheongryang> can be a good enough resource for him to be spotlighted as a poet.

**keywords**

Ohbong Shin Ji-je,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Hyeongam in Yeahn, Yu Il-jae Kim Eon-gi, upright classical scholar, filial behaviors.

